

차게이트 수사 한달...盧 정면 겨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점차 커져 마침내 초대형 태풍이 됐다.

지난달 17일 이정숙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박 회장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을 때만 해도 검찰 수사는 한동안 박 회장이 돈을 건넨 거물급 인사가 차례차례 등장하는 '리스트 수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체포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박연차 발 태풍은 여의도에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향해 갑자기 진로를 틀어 정국을 강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지 8시간 만인 7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대국민 사과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모두 내 책임으로 나를 조사하

자고 나면 새 얼굴...초대형 태풍으로 확대 檢, 부인·아들도 소환...盧 전대통령만 남아

라"는 검찰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를 없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으로 향한 박 회장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면서 박연차 게이트는 2회전을 맞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박 회장의 돈 500만 달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체포했고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아들 건호씨를 미국에서 불러들였다.

또 박 회장이 2007년 6월 100만 달러를 청와대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불거졌다.

박 회장은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며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맞섰다. 급기야 검찰은 이를 확인하려고 11일 권 여사를 극비리에 불러 조사했다.

아직 노 전 대통령 자신이나 가족이 검찰의 칼날에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측근 등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소환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큰 내상을 입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고 정 전 비서관은 구속될 뻔했으며 서갑원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치적 동지와 측근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엇보다 부패에 물든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를 정권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은 이

미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600만 달러의 성격을 밝히려려고 노 전 대통령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14년만에 처음 이뤄질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는 전 국민의 이목을 끄는 '핫 이슈'에 틀림없다.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다. 검찰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감'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 회장의 청탁과 돈을 받고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현 여권의 실세에게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욕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협뉴스



유대인 학살 전범 獨 추방 유대인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존 엠안옥(왼쪽에서 네번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세븐 힐즈의 자택에서 이민국 관리들에 의해 집 밖으로 드러나오고 있다. 그는 2차 대전 중 나치 수용소 간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독일로 추방된다. /연협뉴스

北, 영변 핵 불능화팀에 추방 명령

북한이 14일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에게 북한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전문가들과 IAEA 핵불능화·검증팀이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북핵 6자회담 불참과 기존 6자회담 합의 파기를 이날 성명을 통해 선언했다.

북한은 또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등 '핵 억지력' 강화 방침 및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천명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 움직임에 대해 6자회담 불참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해 왔고, 이에 따른 영변 핵시설 검증요원들의 추방 등의 수순이 예상돼 왔다.

그동안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추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불능화팀과 IAEA 검증팀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북한에 상주하며 활동해 왔다. /연협뉴스

美 전문가 "6자회담 조속 재개 회의적"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4일 북한은 6자회담에 여전히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번 6자회담 거부 발표에 대해 "이것은 6자회담의 끝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문제에서 차이를 드러낼 것이며 (6자회담 재개까지는) 수 개월이 소요되거나 1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북한은 그들이 원한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6자회담 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협뉴스

정부 PSI 참여 이번 주말 발표

정부는 예초 15일로 예정했던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금주 주말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PSI 전면참여 발표를 좀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했다. /연협뉴스

정가 라운지

한나라당 광주·전남 사무처장 선임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사무처장에 나명준(55) 씨와 장준호(50) 씨가 각각 선임됐다.



〈나명준씨〉

〈장준호씨〉

나 씨는 광주

일부 총무국장

과 대주건설 상무를 역임했으며, 장 씨는 광주일보 정치부장·광고국장, 환경다이내스티CC 대표를 지냈다.

이들은 사무처 2급 상당으로 1년 계약직이며, 근무 성적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

4·29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마쳐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4~15일 이틀동안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남도의회 장흥2 선거구 보궐선거에 민주당 김성(50), 민주노동당 정우태(48), 무소속 이문택(44)·정종복(42)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초의회의 경우 광주 서구의회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 민주당 고경애(50·여), 민주노동당 류정수(41) 등 2명이 후보 등록했으며, 영암군의회 라 선거구 재선거에는 민주당 최병찬(47)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들은 16일부터 선거 전날인 28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펼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력을 많이 시킨 학원인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을 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www.hanbit.com.kr

한빛 고시학원

7급 핵심정리 및 문제풀이 개강 5월 1일

남성강한 힘

자신감을 잃은 30-50대 남성을 위한 남성 기력충진에 탁월한 '엑스'입니다.

- ▶ 생리장애를 유발하는 남성 불임요인
- ▶ 강한 힘과 남자의 자신감
- ▶ 안전생리장애를 예방하고 심화

TEL: 152-2400-5000